무주군, 소득농업 실현 박차

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축제 평가회 개최
4억 6천여만 원 매출·입점기반 마련 성과 공유

무주반딧불농·특산물 한마당축제 평가회가 22일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평가회는 행사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농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한마당축제 참여 농가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고양, 수원, 성남지역 하나로 마트 8곳에서 진행된 무주반딧불농·특산물 한마당축제를 통해 총 4억 6천여만 원어치의 농·특산물을 판매했으며

이외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면 홍보와 각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국 홍보에 집중하면서 반딧불농·특산물의 존재와 우수성을 알리고 와인 및 천마가공품의 입점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확실히 달라진 건 도시민들의 무주농·특산물을 바라보는 눈과 그 가치에 대한 생각"이라며 "반딧불 브랜드를 알리고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보여준 만큼 판매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내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계획과 행보에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라며 "한 분 한 분, 한 마디 한 마디가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하는 동력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농업인들은 △원거리 행사·까다로운 인증절차 요구로 인한 참여부담과 △장기간 행사로 인한 일부 농산물의 신선도 하락, △해당 마트 계산대 이용에 따른 불편, △마트 할인행사로 인한 집중도 저하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들을 냈으며 참여하지 못했던 일부 농가에서는 수도권 행사와는 별개로 도시소비자 초청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무주에서도 진행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신상범 기술기획 담당은 "농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그리고 농가소득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며 "반딧불 브랜드와 농산물 인지도 강화라는 반딧불농·특산물 한마당축제 본래의 목적이 소통과 보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기부의 날,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가 22일 무주군청 차 쉼터 1층애서 개최됐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무주 기부의 날, 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 성료

2018 무주 기부의 날,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가 22일 무주군청 차 쉼터 1층애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대표 오용식)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주민 5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정오부터 시작된 행사는 먹거리 장터와 기부물품 판매 등 '나눔마당'과 자원봉사, 성금모금 등의 '감동마당', 재능기부 공연이 펼쳐졌던 문화마당 등으로 진행됐으며 아나바다장터가 특별마당으로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주민 김 모 씨(44세, 무주읍)는 "해마다 와서 구경하고 물품만 사가다가 올해는 작지만 마음을 담아 기증도 해보면서 더 애착이 생긴 것 같다"라며 "행사 수익금 전액이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를 위해 쓰여 진다고 하니 보람이 더 큰 것 같다"라고 전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몸은 좀 힘들고 날은 추웠어도 좋은 일에 노력과 마음을 보탤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한 하루였다"라며 "행사장에 오셔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드셨던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2017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1668만3390원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좋은 이웃들'을 통해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주민들의 긴급생계비와 긴급의료비, 긴급지원비, 청소년물품지원, 주거환경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집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영수 장수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국회 방문 예산소위 위원 찾아 현안 반영 건의

장영수 장수군수가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의단계에 맞춰 총력 대응하고 있다.

장영수 장수군수가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의단계에 맞춰 총력 대응하고 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예결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인 서삼석 의원과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을 만나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과 미반영된 사업 등 모두 4개 사업에 대한 예산 340억원을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시켜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특히 장수군 역점사업인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190억 원)의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당위성 설명 및 관련 부처 설득 등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원은 물론 전북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여·야를 떠나 많은 분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용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저소득층 생활민원 챙겨

진안군은 본격적인 겨울나기에 앞서 저소득층의 생활민원을 꼼꼼히 챙기며 불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안군 생활민원팀은 관내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시설과 상수도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올해 현재까지 보일러 138건, 상수도시설 117건, 집수리 65건 등 500여 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한 보수작업과 관련부서 협업으로 생활불편을 해소해 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종 생활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따뜻한 군정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생활민원팀은 총 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동차량 1대, 고소 작업차 2대를 보유하여 저소득층 군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신고 시 바로 출동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로컬푸드 행복장터 '큰 인기'

장수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품질 좋은 장수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출액 3억 원을 달성하는 등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덕유산 휴게소 하행선에서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장수 대표 농·특산물 판매장 '장수군 로컬 푸드 행복장터'가 개장 1년 만에 매출액 3억 원을 달성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타 지역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다른 판매장과는 달리 장수군 관내 40개 업체의 농·특산품 및 가공식품 등 250여개 상품만 판매되고 있어 매출액 3억 원 달성은 의미가 크다.

특히 장수 사과는 전체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인기 품목으로 품질 우수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 행복장터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은 군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에서도 판매해 소비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수군 농·특산물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메아리

진안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진안군은 12월 28일까지 농촌 들녘에 방치 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들어갔다.

군은 영농 후 방치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해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마을단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을 처리해 왔으나, 수거 배출이 저조하고 농촌의 고령화로 자발적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군은 11개 읍·면 60명의 영농폐기물 수거반원을 선발해 농촌마을의 논?밭과 마을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키로 했다.

수거를 위한 인력뿐만 아니라 차량, 장비도 지원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효율성을 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깨끗한 농촌의 환경을 조성하고,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차단해 산불방지와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상수도 동파방지 '최선'

진안군은 겨울철 상수도 수도시설 동파방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를 동파방지 적극 대처기간으로 정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군은 수도시설 동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긴급지원반, 긴급복구반, 비상급수 대책반을 사업소 내 설치하여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가구별 동파방지 예방을 위해 군은 2016년부터 5,800여 개의 동파 방지팩을 배부해 왔으며, 이달 말까지 신규 급수세대와 계량기함 파손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200개를 더 배부할 계획이다. 주민홍보를 위해 동파예방 홍보 리플릿 1만부를 제작해 읍·면에 배부했으며, 홈페이지와 고지서에도 예방법을 게재하여 동파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빈집과 장기 외출세대에 대하여는 이달 말까지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 조사하여 중점관리 하고 있다.

맑은물사업소 정홍기 소장은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예방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한 동파사고 처리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파신고 접수는 야간, 공휴일 관계없이 진안군청 맑은물사업소(063-430-8731 ~8736)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